

새로운 경제시스템 창출을 위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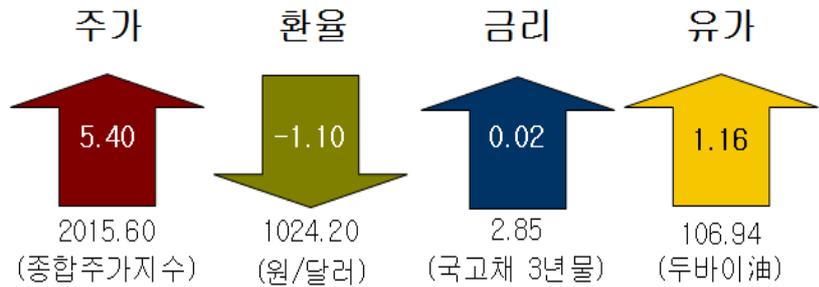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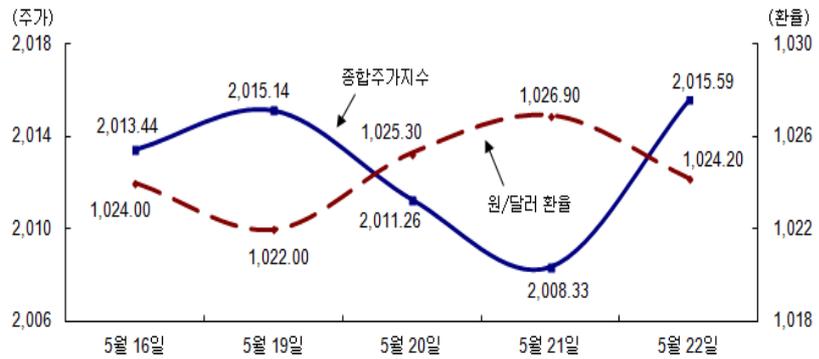
경제주평

Weekly Economic Review

- OECD 비교를 통해 본 한국 사회자본의 현황 및 시사점
- 공적신뢰 회복을 위한 국가시스템 개조가 필요하다

Better than
the Best!

週間 主要 經濟 指標 (5.16~5.22)



차 례

주요 경제 현안	1
□ OECD 비교를 통해 본 한국 사회자본의 현황 및 시사점	1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16

□ 본 자료는 기업 경영인들을 위해 작성한 국내외 경제 경영 주요 현안에 대한 분석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괄 : 한 상 완 경제연구본부장 (2072-6230, swan@hri.co.kr)
 □ 작성 : 장 후 석 연구위원 (2072-6234, chahus@hri.co.kr)
 고 승 연 연구위원 (2072-6308, yeon@hri.co.kr)

Executive Summary

□ 국가시스템 개조가 필요한 대한민국 - 한국 사회자본지수, OECD 국가 중 29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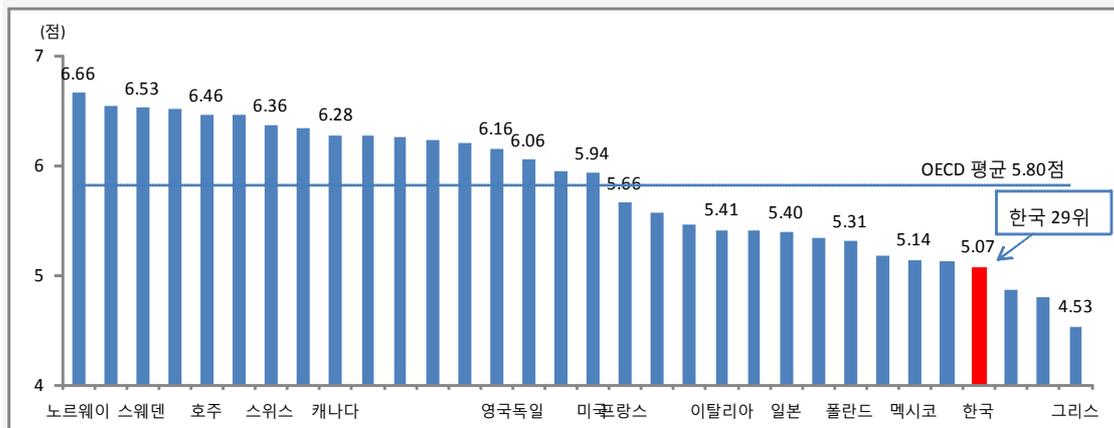
1. 사회자본지수의 개념 및 추정 방법

사회자본지수란 사회자본을 구성하는 요소들 즉, 사회자본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상대적 경쟁력을 지수화한 것이다. 사회자본을 구성하는 요소로는 크게 사적 사회자본(15개 지표)과 공적 사회자본(15개 지표)으로 구분되며, 사적 사회자본은 사적 신뢰, 사적 배려, 사적 참여로, 공적 사회자본은 공적 신뢰, 공적 배려, 공적 참여 등과 같이 사회자본을 구성하는 6가지 요소로 구분하였다. 산출방법은 만점을 10으로 하여 모든 개별지표들의 산술평균값을 지수화했다. 비교대상은 OECD 32개국이다.

2. 사회자본지수 추정 결과

사회자본지수 추정 결과 한국의 사회자본 수준은 G7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한국의 사회자본은 OECD 국가 중 최하위권 수준으로 평가된다. 한국의 사회자본지수는 5.07으로 OECD 32개국(이하, OECD) 평균 5.80을 한참 밑도는 수준으로, 전체 32개 국가 중 29위로 나타났다.

< OECD 사회자본지수 추정 결과(2012년) >



주 : OECD 국가 중 이스라엘, 터키는 데이터 부재로 제외.

둘째, 한국 사회자본은 사적 및 공적 영역 모두 취약 편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사적 사회자본이 5.40점으로 OECD 평균 6.22점에 크게 못미치며, 공적 사회자본도 4.75점으로 OECD 평균 5.37점과 큰 격차를 보인다. 셋째, 정부와 사법시스템 등 공적 시스템에 대한 신뢰 부족이 한국사회자본의 가장 취약한 부분으로 나타났다. 사회자본을 구성하는 6가지 요소 중 공적 신뢰 부분의 순위가 31위로 가장 낮았다. 특히, 정부와 사법시스템 등 국가의 공적 시스템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였다. 넷째, 사적 차원의 타인에 대한 배려도 매우 부족한 편으로 평가되었다. 사적 배려 부분이 낮은 이유는 성소수자에 대한 관용 항목이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내고 있으며, 개인 선택의 자유 항목도 거의 최하위 수준을 보였기 때문이다. 사적 신뢰 부분도 역시 취약한 편인데, 친척이나 친구에 대한 신뢰가 OECD 32개국 중 최하위권을 기록한 것이 결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다섯째, 한국 사회자본의 희망은 상대적으로 높은 국민들의 참여 의식에서** 찾을 수 있다. 공적 참여 부문이 사회자본 6개 요소 중에서는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하여 한국 사회자본 확충의 교두보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적 참여 부문의 점수는 G7국가 평균보다 높은 편으로, 다른 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기록하였다. 사적 참여 부문 역시 상대적으로 성적이 좋은데, 사적 참여를 구성하는 자원 봉사 활동이나 종교 행사 참여 등의 개별 요소 점수가 OECD 평균 수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 G7국가 사회자본지수 추정 결과 >

종합 순위	국 가	사적 신뢰	사적 배려	사적 참여	사적 사회자본	공적 신뢰	공적 배려	공적 참여	공적 사회자본	전체 지수
1	노르웨이	8.17	8.53	4.57	7.09	6.52	6.81	5.34	6.22	6.66
2	뉴질랜드	7.46	8.52	5.37	7.12	6.19	7.17	4.52	5.96	6.54
3	스웨덴	7.67	8.27	5.14	7.02	6.14	7.56	4.29	6.00	6.53
9	캐나다	7.28	8.50	5.22	7.00	5.49	6.88	4.29	5.55	6.28
14	영국	7.05	8.07	4.84	6.65	5.72	7.48	3.77	5.66	6.16
15	독일	7.03	7.87	4.58	6.49	5.64	6.62	4.59	5.62	6.06
17	미국	6.59	7.68	5.85	6.71	4.73	6.54	4.23	5.17	5.94
18	프랑스	6.71	7.42	3.21	5.78	5.49	7.19	3.98	5.55	5.66
21	이탈리아	7.12	6.00	4.82	5.98	4.86	5.91	3.77	4.85	5.41
23	일본	7.26	6.42	3.77	5.81	4.86	6.08	4.00	4.98	5.40
29	한국	6.71	5.23	4.26	5.40	4.11	5.99	4.14	4.75	5.07
G7 평균		7.01	7.42	4.61	6.35	5.26	6.67	4.09	5.34	5.84
OECD 평균		7.14	7.20	4.32	6.22	5.31	6.63	4.17	5.37	5.80

주 : OECD 국가 가운데 이스라엘, 터키는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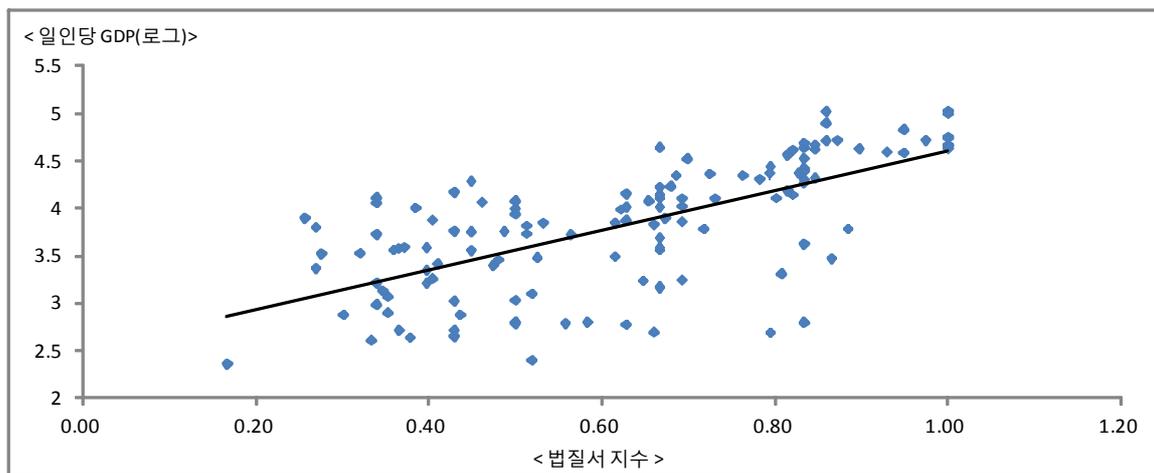
3. 시사점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사회자본 확충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국가시스템에 대한 전반적 개조를 통해 한국의 사회자본 중 가장 취약한 공적 신뢰를 향상시켜야 한다.** 국가시스템에 대한 신뢰성 향상을 위해 행정부 개혁, 사법 질서의 확립, 사회전반에 걸친 부패 방지, 사회적 계약을 중시하는 풍토 조성 등 개인 또는 공동체의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 **둘째, 한국 사회자본 요소 가운데 강점이 공적 참여와 사적 참여의 활용도를 제고해야 한다.** 사적 참여와 공적 참여를 기반으로 사회자본 확충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리와 사회전반의 소통 원활화가 필요하다. **셋째, 사회자본 구성요소들의 전반적인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부 내 사회자본 확충을 위한 추진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국가 전체의 사회자본 확충을 위해서는 다양한 부문에 걸친 동시다발적인 정책 노력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복잡한 정책 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한 정부내 정책추진체제 구축이 요구된다.

1. 사회자본지수의 필요성

- 한 나라의 선진국 진입에 있어서 법질서 준수, 신뢰 등의 사회자본이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냄
 - 예를 들어, 1998년부터 2012년까지의 법·질서 지수¹⁾와 2012년 각국의 일인당 GDP와의 상관관계는 0.67로 높게 나타남
 - 결국, 경제수준이 높은 나라가 사회자본이 높을 뿐 아니라 사회자본이 선진국 진입에 있어서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자본 개념조차 명확하게 합의되지 않는 등 사회자본에 대한 연구가 미흡함
 - 한국이 4만 달러의 진정한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사회자본 확충 등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를 통한 경제 구조의 혁신이 필요함
- 따라서, 일차적으로 HRI 사회자본지수를 수립하여 한국 사회자본에 대한 명확한 개념화가 필요함
 - 이를 통해 우리나라 사회자본의 구체적인 확충 방안에 대해 OECD 주요국의 현황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그림 1> 법·질서 준수와 일인당 GDP



자료 : OECD, Political Risk Services Group 자료를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자체 계산
 주 : 법질서지수는 1998년부터 2012년까지 평균지수, 일인당 GDP는 2012년 자료

1) PRS Group 그룹이 발표한 한국의 1998-2012년 평균지수는 0.79(1점 만점)로 OECD의 평균 지수 0.85를 하회하며, 순위로는 20위권 밖임.

2. 사회자본지수의 개념 및 추정 방법

① 기존 연구에서 나타난 사회자본

- 사회자본이란 네트워크, 규범, 신뢰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Putnam(2000)의 개념이 대표적임
 - 대표적인 사회자본 요소인 신뢰는 공동체가 개인 간의 관계에서 기회주의와 도덕적 해이를 극복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함²⁾
 - 사회자본은 기존 인적자본이 개인적 차원에 그친 것에 비해 네트워크 등 좀 더 관계 중심적인 특징을 나타냄³⁾
- 사회자본의 측정을 위한 연구는 데이터의 한계성과 사회자본 개념에 대한 인식의 목적성을 담보하기 위해 주로 설문조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 90년대부터 사회자본을 측정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2002년 OECD와 영국 통계청(ONS)의 사회자본 컨퍼런스(22개국 참여)에서는 Networks를 중심으로 사회자본 측정에 대해 논의함
 - 이후 영국통계청을 비롯하여 EU 등 국가 차원에서는 신뢰, 상호배려, 참여 등의 관점에서 발굴된 측정 지표를 통해 사회자본 측정함

<표 1> 기존 연구자들의 사회자본 측정 지표

연구자	사회자본 측정 지표	방법
Putnam(1993, 2000)	단체수, 신문구독, 선거추세, 투표 선호도 등	설문조사
Paxton(1999)	신뢰(individuals, institutions), Associationism	설문조사
Costa & Kahn(2003)	자원봉사활동, 공식적 멤버십, 일상활동, 여가 및 친구 방문	설문조사
프랑 스 INSEE(2002)	공식/비공식 네트워크, 지역관점, 감정 및 태도 등	설문조사
영국 통계청 (2004)	시민 참여, 사회 참여, 사회적 지원, 신뢰, 상호의존, 지역적 관점 등	설문조사
독일 노동사회부 (2002)	참여, 만족, 공동체인지, 사회적네트워크, 신뢰 등	설문조사
김성권(2007)	개인에 대한 신뢰, 제도에 대한 신뢰	설문조사
양정호(2007)	단체 참여(정치단체 등), 자원 봉사(기금모금 등)	설문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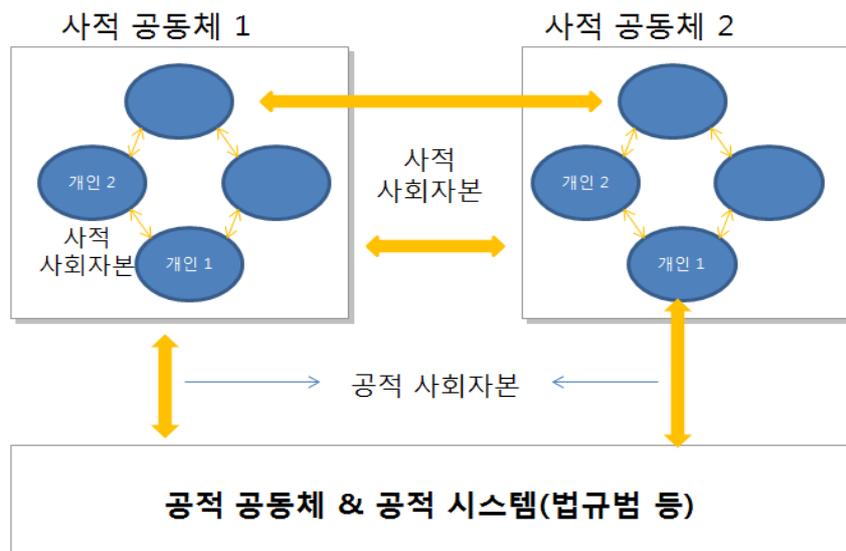
2) Putnam, R. (2000). Bowling Alone. Simon and Schuster.

3) WorldBank(2002).

② HRI 사회자본의 개념

- 본 연구에서는 사회자본을 '신뢰, 참여, 배려를 통해 공적, 사적 공동체 내외간의 협력을 촉진시키는 유무형의 자본'으로 정의함
 - HRI 사회자본의 정의는 OECD 정의(Networks together with shared norms, values and understandings that facilitate cooperation within or among groups)를 기본으로 함
- 크게 사적 사회자본과 공적 사회자본으로 구분되며, 공식 및 비공식 그룹까지 포함된 공동체 범주 내에서 상호 간에 긍정적 힘을 발생시키는 행위나 가치를 포함함
 - 사적 사회자본은 가족, 친구 등 사적 공동체 내의 신뢰, 배려 등 가치인식과 이들과의 참여 등의 적극적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유무형의 자본⁴⁾
 - 공적 사회자본은 국가나 NGO 등 공적 공동체에 대한 신뢰, 배려 등 가치인식과 이들에 대한 참여 등의 적극적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유무형 자본⁵⁾으로 정의됨

<그림 2> 사회자본의 형성



4) 사적 사회자본은 OECD에서 말하는 Bonding 사회자본과 Bridging 사회자본을 포함하는데, Bonding 사회자본은 좀 더 친밀관계(가족, 친구 등)에서 발생하는 사회자본이고, Bridging 사회자본은 가족이난 친한 친구보다 좀 더 덜 친밀한 관계(아는 사람, 직장 동료 등)에서 발생하는 사회자본임.
 5) 공적 사회자본은 OECD에서 말하는 Linking 사회자본을 포함하는데, Linking 사회자본은 공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사회자본을 의미함

③ HRI 사회자본의 구성요소

- (사적 사회자본) 사적 사회자본은 사적 신뢰, 사적 배려, 사적 참여로 구성
 - 사적 신뢰는 가족이나 친구 등은 물론이고 사적 공동체를 형성하는 타인에 대한 신뢰
 - 사적 배려는 개인의 자유 의지에 대한 인정과 소수자 등 타인에 대한 개인의 사적인 배려
 - 사적 참여는 가족이나 친구와의 교류, 종교 등 사회적 활동 참여, 자원봉사 및 기부 활동 등임

- (공적 사회자본) 공적 네트워크는 공적 신뢰, 공적 배려, 공적 참여로 구성
 - 공적 신뢰는 사법시스템에 대한 신뢰, 행정부에 대한 신뢰, 안전에 대한 신뢰 등 국가의 공적 시스템에 대한 신뢰
 - 공적 배려는 삶의 기본적인 생활 유지를 위한 배려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한 국가의 공적인 배려
 - 공적 참여는 투표 참가 등 정치적 활동, 정치인이나 공무원 등과의 공적인 교류 등임

<표 2> 사회자본 구성요소별 속성

구분		속성	기존 연구
사적 사회자본	사적 신뢰	- 가족이나 친구 및 타인에 대한 사적 공동체 내의 신뢰	영국 통계청(2004), 프랑스 INSEE(2002), 독일 노동사회부(2002) 참조
	사적 배려	- 소수자 배려 등 타인에 대한 개인의 사적인 배려	
	사적 참여	- 가족이나 종교 단체와의 교류와 자원봉사 및 기부 활동 등의 참여	
공적 사회자본	공적 신뢰	- 행정, 사법시스템 등 공적 시스템에 대한 신뢰	
	공적 배려	- 경제적 약자 등 국민에 대한 국가의 공적 배려	
	공적 참여	- 단체, 정치 참여 활동 등과 정치인, 공무원 등과의 공적인 교류	

③ 사회자본지수 추정 방법과 구성요소별 측정 지표⁶⁾

- (측정 지표 선정) ISSP, ESS, Gallup World Poll, OECD, Legatum Institute 등의 설문 문항과 양적 지표를 통해 사회자본에 적합한 측정지표들을 선정함
 - 각 구성요소를 측정하기 위해 질적 지표 4개와 양적 지표 1개 등 총 5개의 측정 지표를 선정함
 - 질적 지표는 ISSP(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 ESS(European Social Survey), Gallup World Poll, OECD, Legatum Institute의 설문 문항에서 추출함
 - 양적지표는 OECD의 각종 사회지표 중 적합한 측정지표를 선정함

- (구성요소별 지수 산출 방법) 구성요소별 지수는 해당 요소의 개별 지표들의 산술평균으로 정의함
 - 데이터의 점수 : 질적 데이터의 경우 각 지표별 만점을 10점으로 하여 모든 개별 지표들을 지수화하였고, 양적 데이터의 경우 각 지표는 표준화 후 1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지수화함
 - 구성요소별 지수 산출방법 : 구성요소별 지수는 해당 요소의 개별 지표들의 산술평균으로 정의
 - 사회자본지수 : 6개 각 구성요소지수의 산술평균으로 정의

- (구성요소별 측정지표) 6대 구성요소별 측정 지표는 각 구성요소를 적합하게 표현하는 항목들로 구성됨
 - 아래 <표 3>에서 보듯이, 사회자본을 나타내는 구성요소별 측정 지표는 6대 구성요소별로 각각 5개씩 총 30개로 구성됨
 - 사적 신뢰는 타인신뢰, 친척이나 친구 신뢰, 가족 구성의 해체 등으로, 사적 배려는 이민자나 성수자에 대한 관용, 선택의 자유 등으로, 사적 참여는 자원봉사, 기부, 타인에 대한 도움 등으로 구성됨
 - 공적 신뢰는 정부나 사법시스템의 신뢰, 안전에 대한 신뢰 등으로, 공적 배려는 경제적 약자 배려, 환경보호 관심 등으로, 공적 참여는 공적업무 관심, 정치의견 정당한 제시 등으로 구성됨

6) 본고에서의 6대 구성요소 구분과 이에 따른 측정지표의 선정은 OECD 국가들의 수준 비교가 가능한 지표들을 중심으로 선정하였음. 또, 6대 구성요소의 속성과 대표 지표들이 없을 경우 이를 대신할 수 있는 대리지표들을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음.

<표 3> 사회자본을 나타내는 구성요소별 지표

구분	지표	기준연도	설명	
사적 사회 자본	사적 신뢰	타인 신뢰	2010	다른 사람들을 신뢰하는 정도
		친척과 친구 신뢰	2012	어려움에 처했을 때 친구나 친척 의존 정도
		타인에 대한 부정적 경험	2012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부정적 경험의 정도
		가족 구성의 해체	2010	가족 구성에서 차지하는 사별, 이혼, 별거 비율
		이혼율	2011	연간 이혼건수를 연간인구로 나눈 수치의 1,000분비(양적지표)
	사적 배려	이민자에 대한 관용	2012	이민자가 살기 적합한지 정도
		성소수자에 대한 관용	2012	성소수자가 살기 적합한지 정도
		선택의 자유 인정	2012	다른 국적의 사람들이 살기 적합한지 정도
		어린이의 적절한 성장	2012	어린이에게 적정 성장과 교육 기회를 마련해주는지 여부
		성별 일삶균형 차이	2012	하루 중 여가/개인 용무에 사용하는 성별 시간 차(양적지표)
	사적 참여	자원 봉사 활동 참여	2012	최근 한달간 자원활동 여부
		기부 활동 참여	2012	최근 한달간 기부활동 여부
		타인에 대한 도움	2012	최근 한달간 타인을 도왔는지 여부
		종교적 행사 참여	2012	최근 한주간 종교 행사 참여 여부
		평생교육기간	2010	5세 아동이 39세까지 받을 수 있는 교육 연수의 합(양적지표)
공적 사회 자본	공적 신뢰	정부에 대한 신뢰	2012	정부에 대한 신임 여부
		사법시스템 신뢰	2012	사법시스템에 대한 신임 여부
		교육시스템 신뢰	2012	교육시스템이나 학교에 대한 만족 여부
		안전에 대한 신뢰	2012	거주 지역에서의 야간 활동시 느끼는 두려움 정도
		살인율	2010	인구 중 해당 비율(양적지표)
		공적 배려	경제적 약자 배려	2012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		2012	정부의 환경보호에 대한 노력 정도
	기초 생활 여건 제공		2012	적절한 음식이나 잠자리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성실한 사람의 성공		2012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는지 여부
	GDP 중 복지지출 비중		2012	노인, 장애인, 보건, 가족, 실업, 주거 등 사회복지관련 지출 비중. 현금 및 현물지원 합(양적지표)
	공적 참여	공적 업무에 대한 관심	2012	지난달 공적 업무에 대한 관심 표명 여부
		정치적 권리 행사 제약	2010	정치적 권리 행사에 대한 제약 여부
		정치 의견 정당한 제시	2012	두려움없이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지 여부
		일자리 참여 가능성	2012	일할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지 여부
		투표율	2012	인구 중 투표자 비율(양적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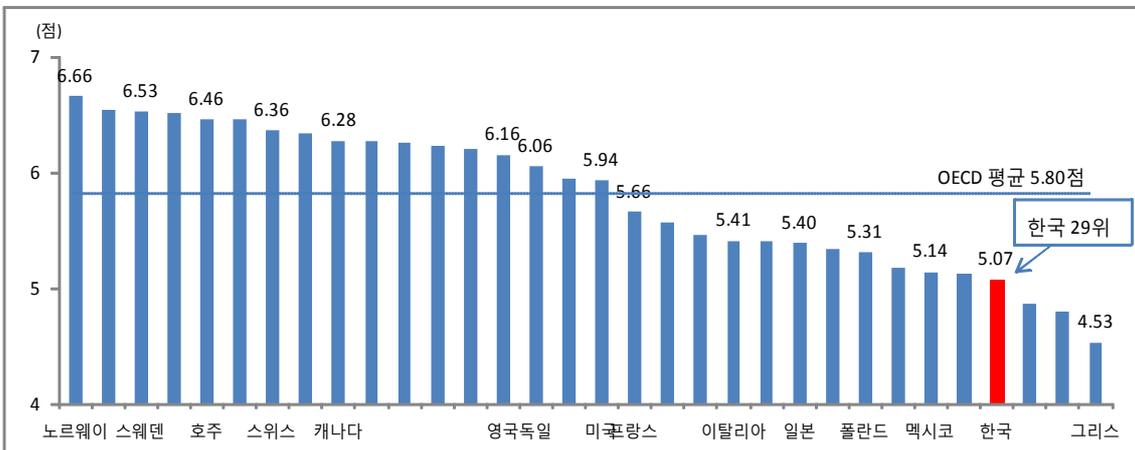
자료 : ISSP(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 ESS(European Social Survey), Gallup World Poll, OECD, Legatum Institute.

3. 사회자본지수 추정 결과

○ 한국의 사회자본, OECD 국가 중 최하위권

- 한국 사회자본지수는 OECD 32개 국가 중 29위에 불과하여 사회자본 확충에 대한 범국가적인 노력이 요구됨
 - OECD 32개국 내 평균 점수 5.80점보다 한국 사회자본지수는 5.07점으로 훨씬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 한국의 사회자본지수가 낮은 것은 국민들의 국가사회 시스템에 대한 공적 신뢰가 매우 낮고, 타인에 대한 사적 배려의 취약 등이 주요 원인임
- G7 국가들은 대체로 중위권 이하에 포진하고 있음
 - 캐나다가 G7 국가들 중에서는 가장 높은 6.28점으로 9위를 차지하였고, 그 뒤를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이 중위권 수준을 보였으나, 일본은 5.40점으로 23위, 이탈리아는 5.41점으로 21위에 불과해 하위권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남
- 복지선도국인 유럽 국가들이 상위권을 많이 차지하고 있음
 - 노르웨이(6.66점), 스웨덴(6.53점), 네델란드(6.51점) 등 유럽 국가들이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으며, 호주 대륙의 뉴질랜드(6.54점)와 호주(6.46점) 역시 5위 이내에 포진해 사회자본에 강한 면모를 보임

< OECD 주요국 사회자본지수 추정 결과(2012년)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7) OECD 국가 가운데 이스라엘, 터키는 데이터 부재로 제외.

○ 사적 및 공적 사회자본 모두 매우 낮은 수준

- 사회자본지수를 구성하는 사적 사회자본과 공적 사회자본 모두 취약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한국은 사적 사회자본이 5.40점으로 OECD 평균 6.22점에 크게 못미치며, 공적 사회자본도 4.75점으로 OECD 평균 5.37점과 큰 격차를 보임
- G7 국가들의 사적 사회자본 평균 점수인 6.35점과 공적 사회자본 평균 점수인 5.37점과도 차이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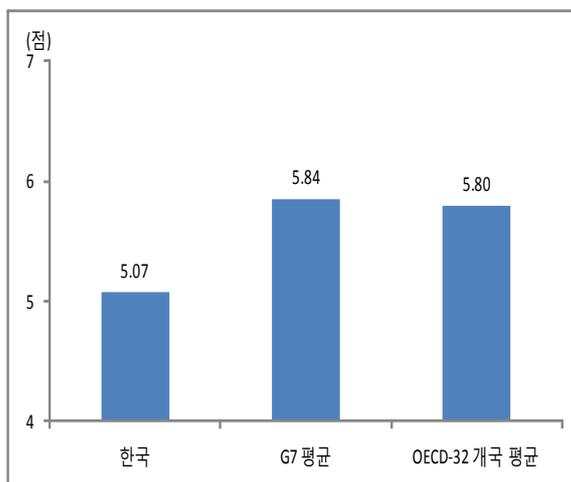
- 사적 사회자본이 낮은 이유는 한국의 사적 배려가 OECD 평균에 한참 미치지 못하기 때문임

- 한국의 경우 사적 참여는 상대적으로 좋은 반면, 사적 배려나 사적 신뢰가 매우 취약해 전체적으로 사적 사회자본지수 점수를 낮춤
- 사적 사회자본 상위 국가로는 아일랜드, 뉴질랜드, 호주 등이 있으며, 하위 국가로는 한국, 그리스, 헝가리, 멕시코 등이 있음

- 공적 신뢰 점수가 너무 낮아 한국의 공적 사회자본 점수를 전반적으로 하락화시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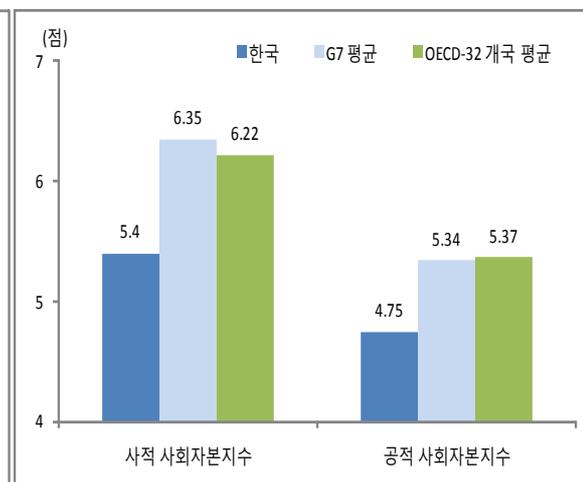
- 공적 참여 점수는 중위권을 유지했지만, 공적 신뢰나 공적 배려 부문이 너무 낮아 공적 사회자본 점수 역시 낮을 수밖에 없음

<한국, G7, OECD 사회자본지수 비교>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사적 및 공적 사회자본지수 비교>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 한국 사회자본의 가장 취약한 부문, 공적 신뢰

- 한국은 정부나 사법시스템 등 국가의 공적 시스템에 국민들의 신뢰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임
 - 한국의 공적 신뢰 부문은 OECD 32개국 가운데 3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OECD와 비교해보아도 한국의 공적 신뢰 부문이 매우 취약한 수준임
 - 특히, 사법시스템에 대한 신뢰의 경우 2.34점으로 OECD 평균인 5.41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함
 - 정부에 대한 신뢰나 교육시스템에 대한 신뢰 역시 각각 27위, 29위로 극히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어, 공적시스템 전반적으로 국민들의 신뢰가 매우 낮은 편임
 - 다만, 범죄 등 안전에 대한 신뢰는 상대적으로 높아, 12위인 중위권을 유지하여 공적 신뢰 부문이 최하위는 모면한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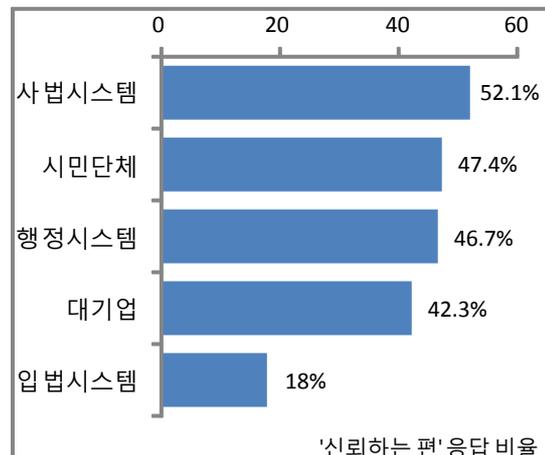
- 이는 현대경제연구원의 2013년 12월 설문조사에서도 잘 나타나는데, 한국 국민들의 국가사회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가 46.4%에 불과함
 - 각 부문별로 살펴보면, 입법시스템 18.0%를 비롯하여 대기업 42.3%, 행정시스템 42.3%, 시민단체 47.4%, 사법시스템 52.1% 등 국민들의 절대적 신뢰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사회자본 추정 결과 - 공적 신뢰>

순위	국가	공적 신뢰
1	스위스	6.85
2	노르웨이	6.52
10	영국	5.72
12	독일	5.64
15	프랑스	5.49
22	일본	4.86
25	미국	4.73
31	한국	4.11
32	멕시코	3.64
OECD 평균		5.31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각 부문별 사회시스템의 신뢰 여부>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2013.12 설문조사.

○ 사적 차원의 타인에 대한 배려도 부족한 한국 사회자본

- 사적 배려 부문은 OECD 국가 가운데 최하위 수준
 - 사적 배려 부문의 경우 5.23점으로 OECD 32개국 중 30위
 - 성소수자에 대한 관용 항목이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인 31위를 나타내고 있으며, 개인 선택의 자유 항목도 29위로 거의 최하위 수준을 보임
 - 다른 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순위를 보이고 있지만, 이민자에 대한 관용도 25위에 불과하고 어린이의 성장을 위한 기회 제공 항목도 28위에 불과하여 좋은 점수는 아님

- 사적 신뢰 부문 역시 하위권 수준
 - 사적 신뢰 부문은 6.71점으로 OECD 32개국 중 28위
 - 이는 친척이나 친구에 대한 신뢰가 7.75점으로 OECD 32개국 중 31위를 기록한 것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침
 - 가족간의 신뢰가 무너져 이혼율이 높아진 것도 한국의 사적 신뢰 부문 하락에 영향을 미침
 - 하지만, 타인에 대한 신뢰 항목은 22위, 일상생활에서 부정적인 경험 측면에서 15위로 중위권을 유지하고 있어 최하위권 수준에서 벗어난 상황임

< 사회자본 추정 결과 - 사적 배려, 사적 신뢰 >

종합순위	국 가	사적 배려	사적 신뢰
1	노르웨이	8.53 (3)	8.17 (1)
2	뉴질랜드	8.52 (4)	7.46 (8)
3	스웨덴	8.66 (1)	7.79 (2)
9	캐나다	8.50 (5)	7.28 (10)
14	영국	8.07 (11)	7.05 (18)
15	독일	7.87 (13)	7.03 (20)
17	미국	7.68 (16)	6.59 (31)
18	프랑스	7.42 (18)	6.71 (29)
21	이탈리아	6.00 (26)	7.12 (16)
23	일본	6.42 (22)	7.26 (12)
29	한국	5.23 (30)	6.71 (28)
OECD 평균		7.20	7.14

주: ()는 OECD 32개국 가운데 순위를 의미.

○ 한국 사회자본의 희망, 공적 참여와 사적 참여

- 공적 참여 부문이 사회자본 6개 요소 중에서는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하여 한국 사회자본 확충의 교두보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공적 참여 부문은 4.14점으로 OECD 32개국 중 16위이지만, 다른 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기록함
 - 공적 참여를 구성하는 요소 중 가장 중요한 투표율 항목이나 정치적 권리를 행사하는데 따른 제약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나타냈기 때문임
 - 다만, 국민들의 공적 업무에 대한 관심(26위)이나 두려움 없이 정치적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가능성(26위)은 여전히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요구됨

- 사적 참여 역시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나타냄
 - 사적 참여 역시 4.26점(18위)으로 OECD 32개국 중에서 중간 수준으로, 다른 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순위를 나타내고 있음
 - 이는 사적 참여를 구성하는 자원 봉사 활동이나 종교 행사 참여 등의 개별 요소 점수가 OECD 평균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냈기 때문임
 - 하지만, 기부 활동(23위)이나 타인에 대한 도움 여부(21위)는 여전히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어 사적 참여 부문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부 활동에 대한 범국민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사회자본 추정 결과 - 사적 배려, 사적 신뢰 >

종합순위	국 가	공적 참여	사적 참여
1	노르웨이	5.34 (1)	4.57 (13)
2	뉴질랜드	4.52 (10)	5.37 (3)
3	스웨덴	5.05 (3)	4.24 (19)
9	캐나다	4.29 (12)	5.22 (5)
14	영국	3.77 (24)	4.84 (7)
15	독일	4.59 (9)	4.58 (12)
17	미국	4.23 (13)	5.85 (1)
18	프랑스	3.98 (20)	3.21 (19)
21	이탈리아	3.77 (25)	4.82 (8)
23	일본	4.00 (19)	3.77 (25)
29	한국	4.14 (16)	4.26 (18)
OECD 평균		4.17	4.32

주: ()는 OECD 32개국 가운데 순위를 의미.

○ 한국 사회자본, G7 모든 국가에게 뒤져

- 전체 사회자본지수뿐 아니라 사회자본을 구성하는 사적 사회자본과 공적 사회자본 모두 G7 국가보다 절대적으로 취약한 수준임
 - 전체 사회자본지수뿐 아니라 사적 및 공적 사회자본으로 나누어 분석해보더라도, G7 국가 중 한국보다 뒤지는 나라는 전혀 없음
 - 사적 사회자본의 경우 OECD 32개국 중 최하위권인 29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G7 평균에 한참 못미침
 - 공적 사회자본도 한국은 OECD 32개국 평균에 뒤떨어지며 순위도 28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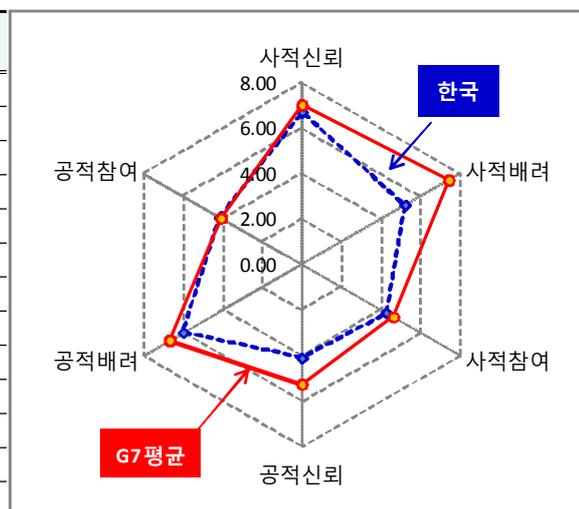
- 사회자본을 구성하는 6개 구성요소별로 보더라도, 한국의 경우 공적 참여를 제외하고 G7국가에 비해 열악한 수준임
 - G7 전체 평균으로 살펴보면, 공적 참여는 한국이 4.14점으로 G7 평균 4.09보다 약간 앞서지만 나머지 5개 부문에서는 한국이 G7 평균보다 모두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남
 - G7 국가별로 6개 구성요소를 살펴보면, 사적 참여의 경우 프랑스와 일본이, 공적 참여의 경우 영국, 프랑스, 일본이 한국보다 열악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다른 4개 부문에서 G7 모든 국가의 점수가 한국보다 뛰어남

< 주요국 사회자본지수 비교 >

종합 순위	국 가	사적 사회자본	공적 사회자본	전체 지수
1	노르웨이	7.09	6.22	6.66
2	뉴질랜드	7.12	5.96	6.54
3	스웨덴	7.02	6.00	6.53
9	캐나다	7.00	5.55	6.28
14	영국	6.65	5.66	6.16
15	독일	6.49	5.62	6.06
17	미국	6.71	5.17	5.94
18	프랑스	5.78	5.55	5.66
21	이탈리아	5.98	4.85	5.41
23	일본	5.81	4.98	5.40
29	한국	5.40	4.75	5.07
G7 평균		6.35	5.34	5.84
OECD 평균		6.22	5.37	5.80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한국과 G7의 6개 구성요소별 비교>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4. 시사점

- 국가시스템 개조를 통해 범국가 차원의 공적 신뢰 향상 필요
 - 국가시스템에 대한 전반적 개조를 통해 한국 사회자본 중 가장 부족한 공적 신뢰 향상을 통한 경제 발전의 원천적인 경쟁력 제고
 - 공적 신뢰성 향상을 위해 행정부 개혁, 사법질서의 확립, 사회전반에 걸친 부패 방지, 사회적 계약을 중시하는 풍토 조성 등이 필요
 - 또한, 신뢰와 관련 교육 투자와 강력한 정책 추진을 통해 개인과 집단의 신뢰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함

- 한국의 사회자본 가운데 강점인 사적 참여와 공적 참여의 활용도 제고
 - 사적 참여와 공적 참여를 매개로 한 사회자본 확충 노력 추진
 - 사적 참여와 공적 참여가 사회자본 확충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리와 사회전반의 소통 원활화가 필요
 - 타 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뛰어난 사적 참여와 공적 참여를 매개로 한 타 구성요소로의 전환 노력이 요구됨

- 사회자본 구성 요소의 전반적인 확충을 위한 정부 추진 체제 구축
 - 국가 전체의 사회자본 확충을 위해서는 다양한 부문에 걸친 동시다발적인 정책 노력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복잡한 정책 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한 정부내 정책추진체제 구축이 요구됨
 - 정부 부처 간, 정부와 민간 부문 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조율·통합하여 일관되고 효율적으로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정부 추진 체제가 마련되어야 함

장후석 연구위원(2072-6234, chahus@hri.co.kr)

고승연 연구위원(2072-6308, yeon@hri.co.kr)

<참고 문헌>

- 우천식·김태종(2007). 한국 경제사회와 사회적 자본, 한국개발연구원
 차문중(2007). 법질서의 준수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KDI정책포럼 제 173호,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2007). 한국경제 사회와 사회적 자본, 한국개발연구원.
 황준성(2005).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신뢰와 한국경제, 신뢰연구 15(2), pp.3-43.
-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2000). Measuring Social Capital; Current Collection and Future Directions, Discussion Paper.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2004). Measuring Social Capital ; An Australian Framework and Indicators, Information Paper.
 Babb, P. (2005). Measurement of social capital in the UK,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London.
 Coleman, J. S. (1990). Foundations of Social Theory.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1990, pp. 300-321.
 Costa, D.L., Kahn, M.E. (2003). Understanding the American decline in social capital. Kyklos 56, 17-46.
 European Social Survey (ESS). [<http://www.europeansocialsurvey.org/>]
 Federal Ministry of Labour and Social Affairs, Germany(2002). Social Capital:Presentation of the major German statistics and the topics they cover. Country paper prepared for the OECD-ONS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ocial Capital Measurement London
 Ferragina, E. (2013). "The socio-economic determinants of social capital. Making Democracy Work revisited. <http://cos.sagepub.com/content/54/1/48.abstract>
 INSEE, France(2002). Direction des Statistiques Démographiques et Sociales. Country paper prepared for the OECD-ONS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ocial Capital Measurement London
 Knack, Stephen and Philip Keefer (1997). "Does Inequality Harm Growth Only in Democracie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1(1), January 1997, 323-32.
 Paxton, P. (1999). Is Social Capital Declining in the United States? A Multiple Indicator Assessment. -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5 (1), 88-127.
 Putnam, R. (2000). Bowling Alone. Simon and Schuster.
 Putnam, Robert D. (2006). E Pluribus Unim: Diversity and Community in the Twenty-First Century, Nordic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World Bank Social Capital Website. <http://www.worldbank.org/poverty/scapital/index.htm>

< 별첨 1. > OECD 국가의 사회자본지수

		사적 신뢰	사적 배려	사적 참여	사적 사회자본	공적 신뢰	공적 배려	공적 참여	공적 사회자본	사회 자본지수
1	Norway	8.17	8.53	4.57	7.09	6.52	6.81	5.34	6.22	6.66
2	New Zealand	7.46	8.52	5.37	7.12	6.19	7.17	4.52	5.96	6.54
3	Sweden	7.79	8.66	4.24	6.89	6.08	7.35	5.05	6.16	6.53
4	Netherlands	7.67	8.27	5.14	7.02	6.14	7.56	4.29	6.00	6.51
5	Australia	7.43	8.64	5.26	7.11	5.69	7.13	4.61	5.81	6.46
6	Denmark	7.75	8.43	4.52	6.90	6.24	6.90	4.89	6.01	6.45
7	Switzerland	7.28	7.78	4.62	6.56	6.85	7.54	4.08	6.16	6.36
8	Iceland	7.55	8.40	4.81	6.92	5.24	7.17	4.87	5.76	6.34
9	Canada	7.28	8.50	5.22	7.00	5.49	6.88	4.29	5.55	6.28
10	Finland	7.70	7.88	4.42	6.67	6.22	7.19	4.19	5.87	6.27
11	Luxembourg	7.02	8.13	3.86	6.34	6.38	7.44	4.76	6.19	6.26
12	Ireland	7.61	8.11	5.85	7.19	5.59	6.38	3.84	5.27	6.23
13	Austria	7.12	7.30	4.62	6.35	5.52	7.73	4.93	6.06	6.20
14	UK	7.05	8.07	4.84	6.65	5.72	7.48	3.77	5.66	6.16
15	Germany	7.03	7.87	4.58	6.49	5.64	6.62	4.59	5.62	6.06
16	Belgium	6.72	7.79	4.02	6.18	5.76	7.42	4.00	5.73	5.95
17	United States	6.59	7.68	5.85	6.71	4.73	6.54	4.23	5.17	5.94
18	France	6.71	7.42	3.21	5.78	5.49	7.19	3.98	5.55	5.66
19	Spain	6.80	7.45	3.92	6.06	4.54	7.17	3.56	5.09	5.57
20	Chile	7.10	6.28	3.97	5.78	4.22	5.88	5.33	5.14	5.46
21	Italy	7.12	6.00	4.82	5.98	4.86	5.91	3.77	4.85	5.41
22	Portugal	6.72	7.16	3.89	5.92	4.79	6.08	3.83	4.90	5.41
23	Japan	7.26	6.42	3.77	5.81	4.86	6.08	4.00	4.98	5.40
24	Slovenia	7.03	6.20	4.46	5.90	4.26	6.29	3.81	4.79	5.34
25	Poland	7.18	5.85	4.45	5.83	4.94	5.75	3.68	4.79	5.31
26	Czech Republic	6.64	6.61	3.08	5.44	4.59	6.49	3.69	4.92	5.18
27	Mexico	7.25	5.85	3.73	5.61	3.64	6.19	4.20	4.68	5.14
28	Slovak	6.72	6.17	3.47	5.45	5.30	5.92	3.18	4.80	5.13
29	Korea	6.71	5.23	4.26	5.40	4.11	5.99	4.14	4.75	5.07
30	Hungary	6.42	5.93	3.37	5.24	5.00	5.05	3.41	4.49	4.86
31	Estonia	6.84	4.70	3.04	4.86	4.75	5.84	3.58	4.72	4.79
³ / ₂	Greece	6.91	4.53	2.93	4.79	4.61	5.04	3.19	4.28	4.53
	평균	7.14	7.20	4.32	6.22	5.31	6.63	4.17	5.37	5.80

주 : 이스라엘 타키는 데이터 부재로 제외.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 주요국 성장률 추이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미국	2.8	3.7	1.2	2.8	0.1	1.9	1.1	2.5	4.1	2.6	2.8
유로 지역	-0.6	-0.1	-0.3	-0.1	-0.5	-0.4	-0.2	0.3	0.1	0.3	1.2
일본	2.0	3.7	-1.7	-3.1	-0.2	1.7	4.8	3.9	1.1	1.0	1.4
중국	7.7	8.1	7.6	7.4	7.9	7.7	7.7	7.5	7.8	7.7	7.5

주 1) 2013년, 2014년 전망치*는 IMF 2014년 4월 전망 기준.

2) 미국, 일본은 전기대비 연율, 유로 지역은 전기대비, 중국은 전년동기대비 기준임.

□ 국제 금융 지표

구분	2012년말	2013년		2014년		전주비	
		6월말	12월말	5월 15일	5월 22일		
해외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1.70	2.46	3.03	2.49	2.55	0.06%p
	엔/달러	85.86	98.51	105.04	101.58	101.37	-0.21 ¥
	달러/유로	1.3222	1.3031	1.3799	1.3710	1.3687	-0.0023\$
	다우존스지수(p)	12,938	14,910	16,577	16,447	16,543	96p
	닛케이지수(p)	10,395	13,677	16,291	14,298	14,338	40p
국내	국고채 3년물 금리(%)	2.82	2.88	2.86	2.83	2.85	0.02%p
	원/달러(원)	1,070.6	1,142.0	1,055.4	1025.3	1,024.2	-1.1원
	코스피지수(p)	1,997.1	1,863.3	2,011.3	2,010.2	2,015.6	5.4p

□ 해외 원자재 가격 지표

구분	2012년말	2013년		2014년		전주비	
		6월말	12월말	5월 15일	5월 22일		
국제 유가	WTI	90.89	96.52	98.55	101.50	104.00	2.5\$
	Dubai	107.99	100.38	107.88	105.78	106.94	1.16\$
CRB선물지수	294.78	275.62	280.17	307.78	308.34	0.56\$	

1) CRB지수는 CRB(Commodity Research Bureau)사가 곡물, 원유, 산업용원자재, 귀금속 등의 주요 21개 주요 상품선물 가격에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하는 지수로 원자재 가격의 국제기준으로 간주됨.

□ 국내 주요 경제지표 추이

구 분	2011	2012			2013			2014(E)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국민계정	경제성장률 (%)	3.7	2.5	2.1	2.3	2.4	3.5	3.0	3.8
	민간소비 (%)	2.9	1.2	2.6	1.9	1.9	2.1	2.0	2.7
	건설투자 (%)	-3.4	-3.2	-4.6	-3.9	6.4	7.0	6.7	2.5
	설비투자 (%)	4.7	4.3	-4.1	0.1	-8.3	6.2	-1.5	6.7
대외거래	경상수지 (억 달러)	187	109	400	508	313	486	799	490
	무역수지 (억 달러)	308	109	174	283	200	241	440	370
	수출 (억 달러)	5,552	2,750	2,729	5,479	2,765	2,832	5,596	6,067
	(증가율, %)	19.0	0.5	-3.1	-1.3	0.5	3.8	2.1	8.4
	수입 (억 달러)	5,244	2,641	2,555	5,196	2,565	2,591	5,156	5,697
	(증가율, %)	23.3	2.3	-4.0	-0.9	-2.9	1.4	-0.8	10.5
소비자물가 (평균, %)	4.0	2.7	1.7	2.2	1.4	1.2	1.3	2.4	
실업률 (평균, %)	3.4	3.5	2.9	3.2	3.4	2.9	3.1	3.1	
원/달러 환율 (평균, 원)	1,108	1,142	1,112	1,127	1,104	1,086	1,095	1,070	

주 : E(Expectation)는 전망치.